

이순신 어록

이내원 (수정·번역·해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몹시 어려운 형편이나 중대한 일을 당하여
하셨던 짧은 말씀들을 모아보면 이순신 장군의 마음 쓰심을 쉽고 빠르게 알게되며
아울러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서 써주면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할 것이요.
써주지 않으면 밭을 갈며 살아도 그만인 것이다.

丈夫生世 用則效死以忠 不用則耕足矣
장 부 생 세 용 족 효 사 이 충 불 용 족 경 족 의

바다로 침입하는 왜적을 막는데는
수군을 따를 만한 것이 없으므로
수군이나 육군 중 어느 한쪽도 폐할 수 없습니다.

爲遮海寇 莫如舟師 水陸之戰 不可偏廢
위 차 해 구 막 여 주 사 수 륙 지 전 불 가 편 폐

바다를 두고 맹세하매 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을 가리켜 맹세하매 풀과 나무도 안다.

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
서 해 어 룡 동 맹 산 초 목 지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무겁기를 산같이 하라.
勿令忘動 靜重如山
물 령 망 동 정 중 여 산

이 말씀은 장군께서 32살의 늦은 나이에 군인의 국
가 시험인 무과시험에 합격하셨지만 정부 요직에 아
는 사람도 없고 또 부탁을 하러 다니지 않아 오래동
안 임용이 되지 않는 딱한 사정을 보고 걱정하는 친
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를 초
월한 대범함이 돋보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조정에서 왜적은 수전에 능
하고 육전에 약할 것이므로 수군을 없애고 육전에
만 전력을 기울이자는 신립 장군 주동의 논의에 반
대한 견의로 그 탁월한 판단이 감탄스럽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란을 당하여 그에게 맡겨진 시대
적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으며 그 책임을 반
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공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임진왜란 최초의 싸움인 옥포해전을 앞
두고 겁에 질려있는 군사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군
령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신중할 것을 가
르치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곧 하늘이시다

天 只
천 지

만약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若無湖南 是無國家
약 무 호 남 시 무 국 가

석자 장검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
삼 척 서 천 산 하 동 색 일 휘 소 탕 혈 염 산 하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다. 죽게 되면 죽을뿐이다.

死生有命 死當死矣
사 생 유 명 사 당 사 의

나라에 충성을 다하려 했건만 죄가 이미 이르렀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었건만
아버지마저 가버리셨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있을까.어서 죽느니만 못하구나

... 竭忠於國而罪己至 欲孝於親而親亦亡
갈 충 어 국 이 죄 기 지 욕 효 어 친 이 친 역 망
奈何奈何 天地安如吾之事乎 不如早死也
내 하 내 하 천 지 안 여 오 지 사 호 불 여 조 사 야

충무공께서 친히 쓴 <난중일기>에 어머님을 지칭하여 쓴 단어로 중국 고전 시경의 母也天只不諒人知 (모야천지 불량인지 - 어머님은 곧 하늘이신 줄을 어이해 사람들은 모르시는가)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공의 해박한 학문적 깊이와 지극한 효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충무공께서 1593년 7월 16일 한산도로 진을 옮기신 다음 날, 친척 현덕승에게 보내신 편지 중 전라도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그 방어를 위해 전략적으로 물길가로막기의 큰 계획을 세웠음을 밝힌 글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지니셨던 두자루 큰 칼에 각각 새겨진 친필 견명으로 장군의 큰 마음과 드높은 기상이 잘 들어나는 한 쌍의 글줄입니다.

이 말씀은 원군과 서인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한산 통제영으로부터 억울하게 서울로 잡혀 가셔서 옥에 갇히기 직전 걱정하는 주변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마음가짐이 돋보입니다

이 말씀은 장군께서 죽음 직전 옥문에서 풀려나 백의 종군길에 고향 아산에 들렸을 때 청천벽력으로, 옥에서 풀려난 아들을 하루라도 앞당겨 보고 싶어 여수 고음천을 떠나 뱃길로 아산으로 올라오시던 82세의 노모께서 거친 풍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만 배위에서 돌아가시자 자기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극심한 자책에 빠져있는데 장례도 모시지 못한 채 호송하는 금부도사의 길 재촉을 받고 하는 수 없이 어머님 영전에 울며 하직을 고한 뒤에 길을 떠나며 흐느끼신 말씀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는 인간적 비탄이 우리의 가슴을 짜리게 합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항거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今臣戰船 尚有十二 出死力拒戰則 猶可爲也
금 신 전 선 상 유십 이 출 사 역 거 전 즉 유 가 위 야
戰船雖寡 微臣不死則 賊不敢侮我矣
전 선 수 과 미 신 불 사 즉 적 불 감 모 아 의

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요 살고자 꾀하면 죽는다.

必死則生 必生則死
필 사 즉 생 필 생 즉 사

한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족히 천명도 두렵게 한다.

一夫當逕 足懼千夫
일 부 당 경 족 구 천 부

한조각 작은배라도 살아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片帆不返
편 범 불 반

이 원수를 무찌를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此讐若除 死卽無憾
차 수 약 제 사 즉 무 감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여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를 빼앗은 원균이 단 한판의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하여 조선수군을 전멸시키고 죽자 조정은 허접지겁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선도 없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 맨손의 이순신 장군에게 차라리 수군을 폐지하고 육지로 올라와 권율장군 수하에서 싸우라는 임금의 유서를 받고 답한 글입니다. 겨우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아직도"라는 적극적인 표현과 죽음을 각오한 의연한 결의로 오히려 "할수있다"고 임금을 설득하는 장군의 충절이 눈물겹습니다.

이 말씀은 앞의 구절과 함께 모두 명량해전 하루 전날, 원균의 칠천량 참패로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군사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우고 죽기로 싸워 이길것을 촉구한 명언으로 열배가 넘는 왜군과 치열하게 싸워 완승을 거둠으로서 충무공께서는 스스로 이 말씀을 이룩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던지 열심을 다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절은 어떤 일을 할때, 그 일을 성공시키기에 특히 좋은 환경이나 때를 이용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노량해전을 앞두고 싸우지말고 왜군을 물러나게 하자는 명나라 도독 진린의 주장에 맞서 우리 백성을 괴롭힌 왜적은 마지막 한 놈도 살려 보낼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돋보입니다. 어떤 일을 끝낼때 완전하게 마무리 하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무공께서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을 앞두시고 1598년 11월 18일 밤, 앞으로 전개될 해전에서 반드시 왜적을 무찌를 수 있게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 이와 같은 마음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드높은 충절, 지극한 백성에 대한 사랑과 불굴의 용기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임진 7년 전쟁을 승리로 매듭지으시며 순국하시므로서 국국의 명장, 세계 제일의 위대한 해군 제독으로 숭양을 받고 계십니다. >